

1910년대 가정비극 연구

윤 일 수*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주제상의 특성
 - 1. 신문물의 숭상
 - 2. 남성의 이중성 비판
- III. 형식상의 특성
 - 1. 불균형의 삼각관계
 - 2. 신·구의 인물대립
 - 3. 비극적 결말처리
- IV. 맺음말

<Abstract>

A Study of domestic tragedies in 1910s

Yoon, Il-soo

In spite of dramas in 1910s have got a important position, opening of drama- in-letters, in Korean drama history, their importance in position is not estimated properly, on account of insufficiency of Dramaturgie, lack of conflict, failure in creation of personality for character, and so on.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give them appropriate value to Korean drama history, reconsidering dramas in 1910s

Gyuhon, *Hwanghon*, *Unmyung* are used as primary research materials, domestic tragedy among dramas in 1910s, critic's reviews in that day, subsidiary research materials. An approach to these works is made focused

* 영남대학교 강수

on common elements, that is, triangular drama structure, antagonism between characters, conclusion of the protagonist's death. It is proved that such defects in these works are, not their own defects, but just an reflection of social atmosphere of a collision in all sides of man who doesn't cope properly with collision, being plunged in confusion, between modern and premodern, old generation and new generation, tradition and foreign cultur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sufficiency of Dramaturgie and failure in conflict between characters in *Gyuhon*, *Hwanghon*, *Unmyung* are reflection of social atmosphere in that day. Therefore, the underestimation of drama in 1910s is an error resulted from some mistake of viewing the previous works by the measure of today.

I. 문제 제기

1910년대는 한국 회극사에서 한글 문자회극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중 <규한>은 개인의식에 눈뜬 근대 시민사회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회극다운 회극이라 극찬되기도 한다.¹⁾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김원중, 유민영, 서연호 등의 견해와 같이 <규한>을 포함한 1910년대 회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먼저, 김원중은 <규한>이 작가의 주장만 만연한 채 드라마투르기가 갖추어지지 않고, 등장인물의 개성적인 성격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이라 규정하였다.²⁾ 유민영도 이광수, 윤백남, 유지영 등에 의해 쓰여진 1910년대 회극을 자기의 문학적 주장의 방편으로 쓰인 무대화하기에 부적합한 작품이라 규정하였다.³⁾ 그리고 서연호 역시 <규한>은 근대의식은 찾아볼 수도 없고 단지 근대유사의식(近代類似意識)만 존재하는 작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⁴⁾

1)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90~91쪽.

2) 김원중, 「한국근대회극문학연구」, 서울:정음사, 1986. 64쪽.

3) 유민영, 「한국개화기연극사」 ①, 서울:새문사, 1987. 149~150쪽.

이와 같이 1910년대 희곡은 주제 면에서 근대의식을 담으려고 했으나, 형식적인 면에서 드라마투르기의 미비, 갈등의 부재 등장인물의 성격창조 실패 등의 이유로 희곡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1910년대 희곡을 당대 시대상을 바탕으로 재조명해 봄으로써 이들이 한국 희곡사에서 차지하는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1910년대 희곡은 그 성격에 따라 비극, 희극, 목적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비극의 경우는 조혼에 의한 가정비극을 소재로 한 <규한>(1917), <운명>(1918), <황혼>(1919.2.), <연과 죄>(1919.9.), <이상적 결혼>(1919.2) 등이 있으며, 희극의 경우는 여권신장을 소재로 한 <병자삼인>(1912)과 <국경>(1918)이 있다. 그리고 목적극의 경우는 조국의 주권회복에 대한 염원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반도영웅>(1914), <세계에 제일 큰 연극>(1915), <동포>(1917)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초춘의 비애>(1918)가 있다. 본고는 본처와 신여성의 갈등을 소재로 한 가정비극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규한>, <운명>,⁵⁾ <황혼> 등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작품인 <규한>과 <운명>은 서연호가 편찬한 『한국희곡전집1』에 게재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황혼>은 양승국의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1』에 게재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II. 주제상의 특성

4)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①,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78쪽.

5) <운명>은 1921년 7월·8월에 고학생 모임인 갈동회에서 공연되기도 했는데, 1924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고, 1930년에는 창문당서점(彰文堂書店)에서 「嗟, 無情」이라는 부제가 붙어져 재간되었다. 이 희곡집 서문에 ‘이 운명은 나의 처녀작이었고 동시에 조선인의 작으로 조선무대에 상연된 최초의 희곡이다! 이러한 의미 아래에서 유치하나마 영원히 이것을 남기고져 한다’는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운명>은 <국경>(1918.12.25.)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명>을 1910년대의 희곡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김원중, 앞의 책, 68쪽.

갑오경장이란 이름아래 1894년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은 오랫동안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어왔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즉, 문벌(門閥)과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혁파, 역인(驛人)·창우(倡優)·피공(皮工) 등 천인의 면천, 죄인연좌법(罪人緣坐法)의 폐지, 양자제도의 개선, 조혼금지 및 과부제가 허용 등이 그것이다. 정치·사회·경제에 걸쳐 진행된 이러한 개혁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게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당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아각성이 추구되고 있는 ‘근대’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추구된 자아각성이란 ‘사회 의식화된 자아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개별적·국부적 범주에 속하는 자아각성은 근대적 자아각성이라고 보지 않는다.⁶⁾ 즉, ‘근대’란 기성 도덕이나 전통적 권위에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근대 시민 생활이나 기계 문명을 구가하는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던 이러한 개혁의 바람은 선각자들의 글을 통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개혁의 열기에 더욱 불을 지핀 글로는 「조혼의 폐단」⁷⁾, 「조혼에 관하여」⁸⁾, 「조혼의 폐를 밟는 자의 더욱 살핌」⁹⁾, 「사회의 풍조」¹⁰⁾, 「민족개량론」¹¹⁾, 「우리의 家庭에 在한 新舊思想의 衝突」¹²⁾, 「구습의 파괴와 신도덕의 건설」¹³⁾, 「혼인론」¹⁴⁾, 「사회와 개

6) 황폐강, 「한국 문학과 근대-〈근대〉의 기점 설정을 위한 시고」, 『근대 문학의 형성과정』, 서울:문학과 지성사, 1983, 48쪽.

이러한 논리에 의해 홍길동의 자기 신분에 대한 각성을 근대적 자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홍길동의 신분 각성이 개인적·개별적 차원에서 제기되었고, 춘향의 변사또에 대한 항거도 그런 의미에서 근대적 자각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그리스도회보」, 1911.3.30.

8) 「매일신보」, 1913.1.5.

9) 「예수교회보」, 1913.8.5.

10) 「그리스도회보」, 1913.11.10.

11) 「신한민보」, 1916.4.6. · 1916.5.4.

12) 「학지평」, 제13권, 1917.7.19.

인」 15), 「조선청년과 각성의 제일보」 16), 「조선청년의 경제적 각성」 17), 「우리사회의 파란」 18), 「조혼의 폐해」 19) 등이 있다.

이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선각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이다. 그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관계 위에 세워진 온갖 차별적 관계를 일체 부정한다. 즉 양반과 상민의 계급적 신분관계, 가족내의 부자관계, 부부관계, 남녀관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다. 또한 부리(父理)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윤리를 통렬히 부정하고 자녀중심의 새시대의 윤리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하는가 하면, 부부관계, 남녀관계에서 조성되는 남존여비의 관념을 비판하고 여성해방을 부르짖기도 한다.²⁰⁾ 이러한 시대상황이 1910년대 희곡에는 확연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1. 신문물의 숭상

근대화와 함께 밀려든 신문물에 대한 동경이 보다 적극화되어 그것에 대한 숭상으로까지 발전한다. 근대화의 영향으로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물'이다. 따라서 조선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인습으로부터 깨어나야 하며, 나아가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전사회에 퍼졌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깨우쳐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도외시하던 여성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화된 나라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선에서도 여성의 고등교육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3) 「학지광」, 제13권, 1917.7.19.

14) 「매일신보」, 1917.11.21.~30.

15) 「학지광」, 제13권, 1917.7.19.

16) 「학지광」, 제15권, 1918.3.25.

17) 「학지광」, 제15권, 1918.3.25.

18) 「학지광」, 제17권, 1919.1.3.

19) 「매일신보」, 1920.11.3.

20) 송명희, 「『규한』과 1910년대의 혼인관」, 『여성문제연구』, 제18집, 경북 하양 시: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0, 255쪽.

제기되기도 한다.²¹⁾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작품 속에 잘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 차 타고 보름이나 가면 하늘 불은 데겠지요?

순 에그, 형님! 지리도 못 배우셨나 봐! 땅덩이가 둥그렇지 넓적한가요.

이 우리야 학교에를 다녔어야지.

췌 참, 우리도 학교에나 좀 다녔으면! 집에 오면 늘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지마는, 글썽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겠소.(규환: 34)

개화이전의 사회에서는 ‘남녀유별’이란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과는 분리되어 별개의 교육을 받았다. 그 교육은 바느질을 비롯한 집안 일과 관련된 것으로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 위한 형태에 머물렀을 뿐이다. 여성에게 행해지던 이러한 교육은 개화기의 선각자들에 의해 통렬한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만 행한다면 굳이 여성에게 아내나 어머니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당시 남성에게 베풀어지던 사회·문화·정치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에 비한다면, 여성에게 배풀어진 교육은 너무 미비했으므로 사회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성격의 교육을 동등한 수준으로 할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²³⁾ 이전까지의 혼인은 생물학적인 입장에

21) 신문명이 가라치난 바를 들건댄, 남녀의 교육은 평행하여야 한다 하오. 그러므로 태서제국에서는 여자에게 대학까지 해방하였으며, 일본의 사상가도 일본이 아직 여자교육의 부족함을 개탄하여 여자에게도(무론 남자를 따라 교육의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남자와 평행하는 교육을 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요. 문명은 ‘여자도 사람이라’는 진리를 가르쳤고, ‘남자와 여자는 균형하게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책임을 진다’하는 진리를 가르쳤고, 이 두 가치를 전제로 하여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교육은 평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가르쳤소. 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①, 『학지광』, 제12집, 동경:학지광사, 1917.4.19. 378쪽.

22) 이광수, 위의 글, 378쪽.

23) 혼인은 반드시 사람인 남자와 사람인 여자와의 결합이어야 하고, 다만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라 하면 전신전령(全身全靈)의 결합을 의미하되,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 하면 다만 생식기의 결합에 불과할 것이외다. (중략) 이 의미로 보아, 나는 영적결합이 없는 부부는 이미 부

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는 것쯤으로 파악했다면, 이때에 와서부터 혼인은 육체적인 결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여인갑 (전략) 그나마 당신같이 학문이나 있어서 혼자라도 벌어먹을 수나 있으면 모르거니와 우리같은 위인들이야……(운명:70)

여인갑 (전략) 저 다이아몬드 농장에 다니는 마서방택이 황당스럽게 들어와서 급작시리 편지 한 장을 써 달란단 말이야. (중략) 그러나 저러나 날더러 편지를 써달라니 어떻게 하우. 낸들 개발새발 내 편지나 쓰지, 남의 편지를 어떻게 쓰우. 아, 그래도 하도 졸라 쌓길래 몇자 적어 주려고 서로 앉아서 부르거니 쓰거니 한참 하는데(운명:71)

여인갑 (전략) 원래 학문도 있는 이니까 남편 몰래 아마 빙표(憑票) 셋 건 모두 내두었든 게야.(운명:72)

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남편과 동등한 지식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 내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았다.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화된 사회는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지적능력을 요구했다. 가정내규에 의해 여성을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두었다 하더라도 개화의 바람은 여성에게도 여지없이 불어닥쳤다. 따라서 이제까지 전통적인 규율에 의해 구속되어 있던 여성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근대화로 인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전까지 우리생활을 지배해왔던 전통적인 사고와 생활양식은 철저하게 배척되었다.²⁴⁾

부가 아니요, 야합(野合)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도 실로 영원히 계약한 야합관계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신성하게 하려면 -혼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 의의와 사명을 발휘케 하려면, 남자와 평행할만한 여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광수, 위의 글, 378~379쪽.

24) 김 지금 조선사람으로서서는 여자나남자나 다-세사람이되야조. 부실것 부서버

영 준 (전락) 평생 형님 옷만 하시겠다. 형님이 조선 옷이야 입기야 하게.
(규한:37)

순 정 아참, 韓醫는信用할수없다고하신말이 只今에생각이나는군. (獨言) 그
럼, 어머니, 西洋醫師를 불러와봅시다.(황혼:1-16)

<규한>의 영준은 한복을 입지 않고 양복만 입고, <황혼>에서 순정의 남편 또한 한의(韓醫)를 불신하고 양의(洋醫)만 신의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화기에 신문물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것은 진부한 것이라고 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신문물을 취하던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당시는 조선의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하고, 조선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크게는 조혼제와 같은 결혼제도에서부터, 사소하게는 의복·머리모양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 남성의 이중성 비판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근대화의 영향아래 놓일 수 있었지만,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근대적인 남성과 전근대적 여성 사이에 발생한 괴리감은 치유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대부분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른다.

<규한>에서 영준은 이씨에게 이혼을 청하기 이전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와 동등한 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영준과 이씨와의 결혼 생

리고 소개드릴것 소개트려 버려야지요. 지금은 무엇- 하는이보다 모든 것을 파괴할것 파괴해버려야하지요.(황혼:1-8)

활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 우리는 너무 성미가 급해서 조금이라도 맘에 틀리는 일이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예구, 저것도 사람인가” 하니깐 차라리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속이 편해요.(규한:35)

췌 자 이게 편지가 아니고 무엇이고? 자 “이영옥 보시오.” “동경 영준”이라고 쓰지 아니 하였소!(규한:38)

영준은 이씨를 아내로서 존중해주지도 않았으며, 이씨를 아내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격체로서도 존중해 주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씨는 남편과 같이 있으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고까지 한다. 그러던 영준이 새삼스럽게 이씨를 ‘이영옥’이라고 부른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름을 부른 남편과 동일한 존재로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준이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대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규한:39)

규한에서 영준은 “자, 이영옥의 몸이 귀여우니깐 영을 갑자기 인격체로 한다.” 하지만 이 통해서 “두사람은 생활은 유가 한다.” 이것은 영준에게만 허용된 것인데

25) 규한:39, 한국비극개 여성주의 비평, 서울:김문당, 1996, 30쪽

이다. 이씨 입장에서 이혼은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혼은 곧 죽음이라는 등식은 전통적인 관습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먼저 전통적인 관습은 ‘출가의외인(出嫁外人)’이라는 인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세속에서 통용되는 ‘일단 결혼을 하면 죽어도 시집귀신’이라는 말과 상통한다. 이러한 이씨의 사고는 이웃아낙이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명백히 표출된다.²⁶⁾ 다음으로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다. 당시는 이미 경제력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할 만큼 자본주의가 사회 깊숙이 도입된 상태이다.²⁷⁾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여성에게 있어서 이혼은 생존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준의 편지에 쓰여진 것처럼 이씨가 독립된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영준의 이혼 세기는 이씨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이다. 전근대사회에서 남성의 횡포가 인습적인 권위외식에서 비롯되었다면, 근대사회에서 남성의 횡포는 남녀동등을 가장한 이기심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운명>에서 자신의 편지에 따른 남성의 이중성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근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1910년대에 형성된 회곡에서도 여성에게 지워지던 정조에 대한 굴레는 여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었다. 선각자들에 의해 여자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광수의

26) 이 나갔으면 죽고 말지, 왜 친정으로 돌아가겠노. (규한:37)

물론 이씨는 어려서 모친을 잃고 사나운 계모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돌아갈 친정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령 김덕천 아내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 한 이야기이므로 ‘출가의외인’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7) 남자로는 독립하여 일가를 유지하며, 자녀를 교육할 능력이 있음이 필요하고, 여자도 일가경제(一家經濟)의 일부를 담당하며, 혹 부(夫)가 병(病)하거나, 사(死)한 시(時)에 자녀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중략) 경제적 능력 없는 자는 혼인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더구나 현대에 있어서는 경제는 개인과 사회의 최중요(最重要)한 생활조건이외다. 그러므로 혼인하려는 남녀의 자격의 하나는 각각 확실한 직업을 가짐이외다. 이것은 현대조선에서 가장 역설(力說)할 것이다. 이광수, 앞의 글①, 376쪽. 이 외에도 경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선창년의 경제적 각성」이 있다.

「혼인에 대한 관견」에 의하면, 혼인은 남녀 양자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만약 계약한 남성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계약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은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누구와도 혼인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는 여성이 재혼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정조관이므로 타파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조문제는 여성을 속박하는 굴레일 뿐이고 남성을 속박하는 굴레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장한구는 집요하게 박매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은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서이다.

박매리 (노기를 띄우고) 아무리 친근한 터이라도, 남편이 없는 계집 혼자 있는 집에 그렇게 아무 통지없이 들어오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중략)

장한구 (전략) 여보시오 매리-씨, 내 입에서 그런 저런 말이 나가도록 하실 것이 무엇이었소? 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을 것이니까. (중략) 사람을 너무 그렇게 말리지 말고 요전에 말한 것은 생각을 좀 해 보셨소? 어떻게 하실 테요. (매리-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었다.)

박매리 (전략) 그런 불의의 추행은 할 수 없어요. 양심이 있거든 부끄러움을 아십시오.(운명:79)

장한구는 유부녀인 박매리가 외간남자를 만나는 것을 탓한다. 장한구의 대사는 박매리의 정조문제를 질책하면서 박매리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박매리가 이수옥과 만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과 박매리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1910년대는 근대화의 물결이 거세게 불어닥치던 시기였으므로 남성들은 마냥 인습적 권위에 빠져 여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1910년대 희곡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대부분이 지식인층이므로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들은 ‘자아의 각성’을 부르짖으며, 조혼한 본처와 이혼하고 신여성과 결혼하는 길을 택하였다. 이제까지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 억압하던 여성을 독립된 개체로 해방시켜준다는 명목하에서 진행

된 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여성해방이라는 이름하에 자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을 집안에서 내쫓는 행위에 불과하다.

III. 형식상의 특성

1. 불균형의 삼각관계

1910년대 회곡에 나타나는 삼각관계는 <규한>과 <황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모의 뜻에 따라 조혼한 남성이 자아를 각성하여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에게 맞는 신여성을 아내로 맞는데서 빚어진 일이다. 즉, 부친의 인습적인 권위에 아들의 항거로 발생한 것이다.

1910년대 회곡의 경우 삼각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규한>이나 <황혼>과 같이 조혼한 아내와 자유연애로 맺어진 신여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성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운명>과 같이 부모가 맺어준 남편과 자유연애로 맺어진 애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구체적인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규한>의 영준은 본처인 이씨와 일녀(日女) 사이에서, <황혼>의 김인성은 본처와 배순정 사이에서, <운명>의 박메리는 남편 양길상과 애인 이수옥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조혼이 낳은 폐해 중의 하나이다. 당시는 조혼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이광수의 「혼인에 대한 관견」과 「혼인론」 이외에도 「조혼의 폐단」, 「조혼의 폐를 믿는 자의 더욱 살핌」, 「조혼의 폐해」, 「조혼에 관하여」 등의 글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부모의 뜻에 따라 자녀의 혼인을 결정하던 당시 사회풍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종속물로 여긴 데서 비롯된다. 가부장제가 가지는 속성상 가장에게 가족 구성원의 장래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진 데서 빚어진 폐단이다.

최 그대와 나와 서로 만난 지 이미 오 년이라. 그때에 그대는 십칠 세요,

나는 십사 세라-. (중략) 그때에 나는 아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혼인이 무엇인지도 몰랐나니, 내가 그대와 부부가 됨은 내 자유의사로 한 것이 아니요-. (중략) 전혀 부모의 강제- 강제, 강제- 강제로 한 것이니, 이 행위는 실로 법률상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 (규한:39)

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 사람이 못하게쎄. 당사자 이외에는 제가 평생 을 갖지 살 것을 었더케 남이 정합닛가? (중략) 제 혼인으로만 말씀하드래도 그럿치오. 철도 안이 난 것을 붓드러다 늦코 이 말 저말 업시 하신 혼인이 안입닛가. 물론 아버지피서 철도 안이난 것을 붓드러다가 혼인식하신 것도 잘못하섯고, 실은 것을 작고 실나고 걱정하시는 것도 무리지요. 참 혼인을 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이해와 열렬한 사랑이 잇서야 하지도. 두 사람이 천저하게 이해하고 열렬한 사랑이 잇서야 하쥌. 이것이 업는 혼인이라 면, 벌써 이것은 참 혼인이 못되겠지요. (황혼:1-10~11)

박메리 자식에게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침해되고 하늘이 내리시는 행신(幸神)을 발길로 차버리는 것인 줄로만 생각하신 게지요. 꾸지람이 여간치 않으 셧습니다. 그리고 중매든 사람한테 혼자 승락을 해버리셨습니다. (중략) 나는 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극기야에 아버지께서는 전보로 여비를 청하신다, 여 행권을 내신다, 여러 준비를 나 몰래 하신 뒤에 망성거리는 나를 잡아 끌듯 당신이 횡빈(橫濱)까지 안동해 오셔서 배타고 떠나는 것까지 보시고야 가셨습니다. (운명:77)

조혼한 <규한>의 영준이나 <황혼>의 김인성은 한결같이 자신의 혼인이 무 효임을 주장한다. 물론 <운명>의 박메리는 조혼을 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 혼인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은 자아를 각성한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광수에 의하면, 두 사람이 지아비와 지어 미가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혼인을 하면, 성장하여 자아를 각성하게 되었을 때, 결혼이 자기의 의사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부모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 이혼에 이르는 일이 많다고 보고 있다.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할만큼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것처럼 중요한 일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항이라 할 수 있다.²⁸⁾

<규한>에서 영준과 일녀가 사귀고, <황혼>에서 김인성이 배순정과 사귀는 것은 자아를 각성한 남성이 자기 부친의 권위에 반기를 든 형태이다.²⁹⁾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본처와 이혼하고 신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1910년대 회곡에서 삼각관계를 설정한 것은 전통적 가부장제에 항거하는 신세대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방편이다.

2. 신·구의 인물대립

1910년대 회곡은 그간 갈등의 부재 때문에 드라마투르기의 미숙함으로 비난받았다. <규한>과 <황혼>에서 조혼을 한 본처는 신여성과 자유연애를 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므로 처첩간의 갈등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에서 처첩이 서로 대면하거나 갈등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간에 1910년대 회곡이 많은 비난을 받은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권순중은 <규한>에서 극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준이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형성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³⁰⁾ 그리

28) 이광수, 「혼인론」 ②, 『매일신보』, 1917.11.28.

29) 처(妻)에게 만족하지 못하여, 혹 첩(妾)을 축(蓄)하여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며, 혹 화류계에 침혹(沈惑)하여 다만 조전(祖傳)의 재산을 탕진하고, 사회의 풍기를 문란할뿐더러 애석한 일생을 허송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일생을 허송함이 어찌 다만 일개인의 불행뿐이오리까. 그를 함(含)하고 그를 뢰(賴)하여 성립하는 전사회(全社會)의 불행일 것이외다. 혹 부(夫)의 애(愛)를 득(得)치 못하여 일생을 홍루(紅淚)로 지내며, 혹 꽃다운 청춘의 생명을 자진(自盡)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여자 일개인의 불행뿐이오리까. 그를 함(含)하고 그를 뢰(賴)하여 성립하는 전사회(全社會) 불행일 것이외다. 이광수, 위의 글, 1917.11.23.

30) 권순중은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이 전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회곡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사가 회곡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인물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 대사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중략) <규한>이 회곡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씨 남편을 직접 무대 위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씨 남편이 직접 부인에게 자신들의 결혼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씨는 남편의 주장과 맞서서 의지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

고 김원중은 <운명>에서 한 여성을 중심으로 두 남성 사이에 발생한 삼각관계가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립관계에 있는 두 남성의 직접적인 마찰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³¹⁾ 이에 반해 영준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송명희는 영준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드라마투르기 상의 미비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혼의 폐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제시로 해석하는 경우이다.³²⁾

1910년대 회곡에서 신구의 갈등은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부자간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유진월은 혼인이라는 남녀 간의 문제가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문제화되지 않고 부자 간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문제적 상황의 당사자인 아내에 대한 경시적 태도는 작가의 여성관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³³⁾ 주인공 이씨에게 가해지는 갈등의 요인이 남편

면, 남편의 결혼 무효 선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내적 갈등이라도 겪어야 회곡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나 <규한>에서는 이러한 요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다. 있다면 그것은 무대와 등장인물과 대사와 행동뿐이다. 따라서, <규한>은 회곡의 형식만 갖춘 것이지 그 본질적인 갈등까지는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회곡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회곡 형식을 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권순중, 앞의 글②, 398~399쪽.

31) 한 여성을 가운데 두고 두 남성이 대립하는 삼각 갈등 관계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두 남성간의 직접적인 대결이 극명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운명>에는 수옥과 길삼의 직접적인 대립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있어야 할 남성’과 ‘있어서는 안 될 남성’의 직접적인 대립이 없는 삼각 갈등관계는 대립의 약화와 주제의 약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때문에 작가는 수옥의 연철적인 대사를 통해 주제를 표출하기에 안간힘을 쓴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사친 결혼의 폐단이고 전통적인 유교 모델이 남긴 결과이며 모든 것이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전개된다. 김원중, 앞의 책, 70쪽.

32) 이광수는 이 작품에서 조혼으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혼의 대응방안을 조심스럽게 타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작가의 신중함 내지 조심스러운 타진은 주인공 이씨에게 갈등적 존재인 남편 영준이 드라마의 전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송명희, 앞의 글, 259쪽.

33) 유진월, 앞의 책, 38~39쪽.

으로부터 야기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 조혼이란 잘못된 혼인제도로부터 주어진 개인과 사회관습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점은 남편의 편지 속에서도 적절히 제시되고 있다. 조혼이란 불합리한 혼인제도 하에서 남자는 여자는 모두가 희생자가 된다. 그리고 조혼으로 인한 불행은 어느 특수한 개인에게서만 경험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작가는 조혼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가기도 하며, 여성만이 희생자가 아니라 남성도 희생자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³⁴⁾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아내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따르고, 남편은 근대적인 결혼관을 따르고 있다. 각기 다른 세계에 사는 이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과 자신의 관계보다, 시부모와 자신의 관계가 우위에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여자는 남편보다도 더욱 남편의 부모인 시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봉사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시부모 섬기기를 친부모와 꼭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며느리는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사전에 반드시 시부모의 허락을 얻은 연후에야 착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집의 조직의 근간이 부부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중심(父子中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집은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 미래의 후손에까지 연결되는 영속적인 집단이다. 집의 존속은 조상에서 후손에 이르는 무한한 친자관계의 연속을 의미한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일 대 일의 혼인이 아니라, 시가(孀家)와 친가(親家) 간의 집안끼리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문중(門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아내를 남편이 개인적으로 내칠 수 없다. 남편이 본처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규한>과 <황혼>에서 며느리를 두둔하는 시부모들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에 반해, 근대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자신

34) 송명희, 앞의 글, 259쪽.

의 관계보다 자신과 아내와의 관계가 우위에 있다.³⁵⁾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혼인을 하여 사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처와의 혼인은 무의미하며 혼인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처와의 혼인을 무효화시키고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최 (전략) 지금 문명한 세상에는 강제로 혼인시키는 법이 없나니 우리의 결혼행위는 당연히 무효하게 될 것이라. 이는 내가 그대를 미워하여 그림이 아니라 실로 법률이 이러함이니, 이로부터 그대는 나를 지아비로 알지 말라. 나도 그대를 아내로 알지 아니할 터이니 이로부터 서로 자유의 몸이 되어 그대는 그대 잘 데로 갈지이다.(규한:39)

이수옥 (전략) 또 하나는 썩어진 유교의 독즙이올시다. 문권(文權)의 남용이올시다. 그러면 그릇된 도의와 부유(腐儒)의 습속이 우리 조선 사회에서 사라지기 전에는 우리 사회는 얼빠진 등결박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운명:77)

김 (전략) 지금이라도 우리집에 가서 이혼해 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집에서 큰 야단이 날 테지요. 또 사회의 냉평(冷評)도 있겠지요. (중략) 집안의 호령이 있거나 사회의 욕이 있거나 나는 나요, 그는 그을시다. 나는 언제든지 나요, 그는 언제든지 그겠지요. (황혼:1-8)

이와 같이 아내와 남편은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결혼을 파기하려는 남편은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결혼을 유지하려는 아내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남편보다 우위에 있는 시부

35) 우리는 군세고 풍부한 개성들을 건설하여야 하겠도다. 다시말하면 철저한 '나'를 건설하며 완전한 인격을 건설하여야 되겠도다. 고인(古人)은 말하기를 효(孝)는 백행(百行)의 본(本)이라 하였으나 나는 가라되 '나'의 건설은 백행만사(百行萬事)의 본원(本源)이라 하리도다. 내가 없이 무엇을 하며 왜 하며 내가 불완전하고 무엇을 능히 하리요. 먼저 나를 건설하라. 전영태, 「구습의 타파와 신도덕의 건설」, 「학지광」, 제13권, 동경:학지광사, 1917.7.19. 470쪽.

모들이 그녀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녀와의 결혼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본처와 남편 두 사람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대 회곡의 갈등은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부자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 회곡의 갈등은 본처와 신여성간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본처와 신여성은 직접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표출 방식은 그간에 1910년대 회곡이 비난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갈등 부재는 1910년대의 회곡이 수평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수직관계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부간 내지는 처첩간이 아니라 부자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것은 자아를 각성한 남성의 부친에 대한 항거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1910년대 회곡에 나타나는 갈등표출 방식은 극작술의 미숙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대 개인간에 발생한 갈등이므로 갈등 표출방식이 색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비극적 결말처리

1910년대 회곡인 <규한>, <황혼>, <운명> 등의 결말은 인과관계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갑작스런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규한>에서는 영준의 편지를 받은 이씨가 갑자기 실성을 하고, <황혼>의 남자 주인공도 갑자기 자살을 한다. 그리고 <운명>에서도 수옥은 여객선의 고장으로 우연히 하와이에 머물게 되어 박메리를 만나고, 또 묘지의 우연한 만남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드라마투르기의 미숙함으로 치부되거나 신파극적인 구성의 답습이라고 매도되어 왔다.

여기에 대하여 서연호는 갑자기 일어난 충격에 대하여 이씨가 벌이는 허장성세와 감상적인 뉘드리는 남편의 피상적인 문명의식과 함께 작품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했고,³⁶⁾ 권순중은 인종의 보람도 없이 충격적인 편지를 받는 순간 이씨가 벌이는 일련의 행위 즉, 짧은 순간에

36) 서연호, 앞의 책①, 90쪽.

받은 충격, 그로 인한 감상적인 뉘드리, 정신착란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작위적인 처리라고 지적하였으며,³⁷⁾ 이미원 역시 초창기 희곡은 장면묘사만 사실적일 뿐이고 근대극의 핵심이라 할 인과율에 의한 구성이 미흡하며 신파극적 구성을 답습했다고 보았다.³⁸⁾ 이와 같이 1910년대 희곡의 결말처리에 대한 대체적인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두현은 <규한>, <운명>, <황혼> 등이 자유연애와 구식결혼과의 갈등을 다루면서 각각 살인, 자살 또는 정신이상 등으로 비극적 결말로 끝맺는데, 이러한 결말은 당시의 젊은 세대가 전근대의 벽에 부딪쳐 몸부림치던 고뇌의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³⁹⁾

그렇다면 1910년대 희곡작가들은 왜 결말처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910년대의 결말처리 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가부장제 사회의 속성과 연결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삼각관계의 인물구성이라든가 신구인물의 갈등이 가부장제 내지는 가부장제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면 우연적인 결말 또한 가부장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흔한 처와 이혼을 하고 신여성을 맞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건 전개양상을 보이는 <운명>과 <황혼>의 사건 종료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이유와 그들 부친과의 대립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처리는 매우 상이한 형태로 되어있다. <규한>에서는 본처가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는데 비해, <황혼>에서는 남편이 자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먼저, 본처가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규한>의 경우를 살펴보자. 영준은 편지를 통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한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집안은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이때 가족들의 반응은 영준의 지각없는 행동을 탓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37) 권순종, 앞의 글②, 403쪽.

38) 이미원, 앞의 책, 97쪽.

39) 이두현, 「신극의 선각자들-1910~1920년대의 한국연극」, 『한국희곡문학대계』, 제1권, 한국연극협회, 1976. 534쪽.

병 형님이 미쳤구나. 공부야 무슨 공부인고.(규한:39)

김 이게 무슨 변이나. 왜 병준이 너는 그 편지를 갖다가 보였느냐.
(규한:41~42)

모 그게 무슨 자식이 고런 철없는 생각이 나서 집안에 이런 괴변이 생기게 한단 말이고.(규한:42)

이씨의 시동생 병준, 시아버지 김의관, 시어머니 박씨 등의 반응에서 영준의 이혼 청구는 '미친 짓'이며 '철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괴변'이다. 즉, 이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가족들의 반응에서 이씨와 영준의 이혼은 이미 기정 사실이다. 다만 이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혼이라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씨는 영준과의 이혼과 동시에 시가(媳家)로부터 나와야 되는 상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혼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즉 이혼은 시가(媳家)에서 이씨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시가의 입장에서는 이씨가 죽는 것과 같다. 즉, 이씨의 정신이상은 가부장제 하에서 시가로부터 내쳐지는 이씨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인성이 자살하는 <황혼>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인성은 신여성 배순정과 결혼하기 위해 원부인과 이혼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원부인이 아니라 김인성이다.

부 (전략) 비선왕지법(非先王之法)이면 불감복(不感服)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집안이 조상 적부터 그런 일이 도모지 업섯서. 지금 내가와서 이것을 욕되게 한다면 나는 죽어도 맘을 못 늦겠스니가 나는 할 수 없다. (중략)

김 그러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부 이놈 썩 나가거라. (황혼:1-12)

김인성의 이혼 즉, 부모가 맺어준 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전통적 가족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통적 사고에 따르면 혼인은 개인 대 개인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준의 이혼은 집안끼리 맺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집안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의관은 이혼으로 집안을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아들을 집안에서 내쫓고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쪽을 택한다. 전통적인 사고로 봤을 때 집안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의미를 갖는다.⁴⁰⁾ 따라서 집에서 나온 영준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규한>과 <황혼>이 남성 한 명에 여성 두 명이 대립하던 것과 달리 <운명>은 여성 한 명을 중심으로 남성 두 명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결말부도 박메리가 양길상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여성 박메리는 결혼을 약속한 이수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강요에 의해 하와이에 있는 양길상과 사진결혼을 한다. 비록 박메리의 결혼이 그녀가 성숙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점에서 조혼의 병폐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두 작품에서 영준과 김인성이 이혼으로 의지를 실현했다고 본다면, <운명>의 박메리는 의지를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직접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박메리가 거주하는 하와이의 한국 남성들은 무지해서⁴¹⁾ 합법적으로 이혼을

40) 본사자로 된 자 또는 될 다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제사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폐적(廢嫡)이라고 하는데, 법전의 규정은 없으나 18세기 중엽까지는 폐적의 법판습이 행하여졌다. 폐적사유는 맹인(盲人)·주사(誅死)나 유배(流配) 등의 처형·폐질(廢疾)·주사(主祀)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품행불량·불효·불충·패역불순(悖逆不順)·실종(失踪)·생모의 개가(改嫁) 등이었다. 폐적은 1473년(성종4)부터 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당(祠堂)에 고하였다. 폐적되면 장자는 중자의 지위로 떨어지고 차적봉사를 하거나 입양을 하였다. 박병호, 앞의 글 ②, 507쪽.

41) 여인 갑 (전략) 지난달에 새로 들어왔던 김서방댁 아파, 저 사탕회사(砂糖會社)에 있는 이의 아내 말예요. (중략) 그이가 아까 세 시에 일본배 파나마환 갑판 위에서 칼에 찌려 죽었다단다. (중략) 그 김서방이란 이가 좀 허우. 술만 먹으면 아주 미친 사람 모양으로 공연한 사람을 가지고 들볶지요. 그런데다가 요새는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길상의 죽음은 부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박메리의 항거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1910년대 희곡은 드라마투르기의 미비, 갈등의 부재, 등장인물의 성격 창조 실패 등의 이유로 그 동안 평가 절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1910년대 가정비극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규한>의 영준, <황혼>의 김인성, <운명>의 박메리는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혼인을 했다. 이와 같이 조혼한 젊은이들이 자아를 각성한 이후, 부친의 인습적 권위에 반기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맺어짐으로써 삼각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당시 가정 비극류 희곡의 공통된 특성이다. 이것은 문예활동을 통해 당대 현실을 개혁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물간의 갈등양상은 현상에 눈뜬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자아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빚어진다. 그러나 이 갈등은 등장인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간의 벌어지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즉, 격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인물의 갈등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인물간에 벌어지는 갈등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910년대 희곡은 그간에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난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결말부는 젊은 세대들의 죽음이나 정신이상증세와 같이 비극적인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결말부 처리는 극중의 젊은 세대들이 부친의 권위에 도전해 보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누구하고 눈이 맞았느니, 누구하고 배가 맞았느니 하고 막 칼을 가지고 날뛰는 구료. 그래 아마 참다 못해서 조선으로 도로 도망올 가려고 했는가 봄디다 그려. (운명:71~72)

주제어 : 가정비극, 가부장제, 신문물, 자아각성, 근대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그리스도회보」
 「매일신보」
 「신한민보」
 「예수교회보」
 「학지광」

서연호 편, 『한국회극전집』, 제1권, 서울:대학사, 1996.

양승국 편, 『한국근대회극작품자료집』, 제1권, 서울:아세아문화사, 1989.

2. 단행본

권순중, 『한국 회극의 지속과 변화』, 대구:중문출판사, 1991.
 김원중, 『한국근대회극문학연구』, 서울:정음사, 1986.
 서연호, 『한국근대회극사』,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유민영, 『한국개화기연극사』, 서울:새문사, 1987.
 ———, 『한국근대연극사』,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유진월, 『한국회극과 여성주의 비평』, 서울:김문당, 1996.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이미원, 『한국근대극연구』, 서울:현대미학사, 1994.

3. 논문

권순중, 「〈규한〉과 〈순교자〉 연구」, 『한국회극선』, 대구:중문출판사, 1989.

- . 「〈병자삼인〉 연구」, 『영남어문학』, 제14집, 영남어문학회, 1987.
- . 「전통극과 근대극의 접맥양상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9.
- 권오만. 「1910년대 희곡연구-〈병자삼인〉과 〈규한〉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70.
- 김익두. 「병자의 논리와 식민지 교육-희극 〈병자삼인〉의 주제 해석」, 『한국희곡론』, 진주:신아, 1991.
- . 「초창기 창작희곡의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1983.
-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죽과 가부장」. 『한국학보』. 제2집. (1976·봄). 서울: 일지사.
- 박승규. 「여명기 한국근대희곡의 형성과정」, 국민대 석사논문, 1982.
- 송명희. 「“규한”과 1910년대의 혼인관」. 『여성문제연구』. 제18집. 경북 하양시: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0.
- 양승국. 「1910년대 신극과 전통연희의 관련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9집. 한국극예술학회. 1999.4.
- 유민영. 「한국연극에 나타난 여인상」. 『아세아여성연구』. 제15집.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76.
- 이두현. 「신극사의 선각자들-1910~1920년대의 한국연극」. 『한국희곡문학대제』. 제1권. 한국연극협회. 1976.
- 이순형.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한국학보』. 제71집. (1993·여름). 서울:일지사.
- 조옥라.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제2집 한국여성학회. 1986.
- 황폐강. 「한국 문학과사 와 근대-〈근대〉의 기점 설정을 위한 시고」. 『근대 문학의 형성과정』. 서울:문학과 지성사. 1983.

※ 이 논문은 2003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5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6월 3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